

高七二·五cm、頭高二〇cm、膝幅六二cm 頭光徑三五cm이다。像은斜光線을 받았을 때 大綱의 輪廓을 알아 볼 수 있을 程度이나 胸部以上 特別顔面은 比較的 잘 保存되였다。陰刻한 同心圓 頭光을 三重으로 나타냈고 그 中心에 美麗한 頭部가 있다。鼻端에 若干의 損傷이 있으나 豊美한 兩頰과 가는 兩眼은 매우 아름다우며 特別精誠을 드러낸 口唇은 매우 柔美하다。頭部에는 三面花冠이 희미하게 보이며 寶髮의 有無는 確認하기 힘들다。比較的 좁은 어깨에 걸쳐 一條의 瓔珞이 가슴앞으로 늘어졌고 右手는 어깨까지 들어서 外掌하고 무엇인가 잡고 있는 듯하나 確實하지 않다。

左手는 膝上에 있는 듯하나 매우 희미하다。通肩인 듯한 衣紋이 胸前에 보일 뿐 膝部에 이르러서는 매우 磨損되어 알아 볼 수 없다。

臺座는 向右側에 數條의 蓮瓣인 듯한 線이 보일 뿐이다。비록 大作은 아니고 下半部가 磨滅되였다 하나 上半身은 매우 優雅하며 顔面은 特別 美麗하다。原在地인 「애기봉산」에는 작은 庵宇나 마들 어실만한 適當한 자리가 없으나 돌을 보고는 정을 안들 수 없는 新羅人의 氣魄을 느끼는 것 같다。그 製作은 八世紀以下로 떨어져지 않을 듯 하며 盜失된 佛像이 發見되어야 할 것이고 좀더 細密한 調査가 있으면 새로운 佛像의 發見도 可能할 듯하다。

### 驪州 下里三層塔 및

### 倉里三層塔의 內部裝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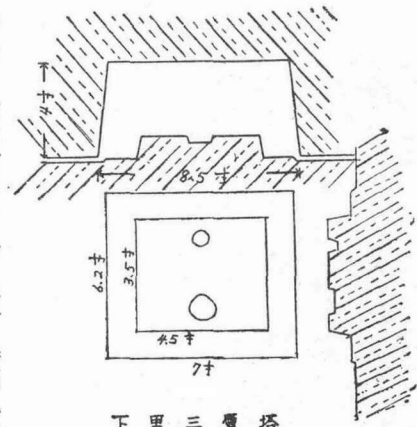
尹 武 炳

우리나라 石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舍利裝置法은 大개 初層 塔身石의 上面에 適當한 크기의 구멍(方孔 또는 圓孔)을 파고 거기에 安置하는 수가 많다。때로는 二層이나 또는 三層 以上의 塔身石 或은 그들 屋蓋石 中の 하나에 그와 같이 구멍을 파고 安置하는 법도 있으나 大개 石塔의 경우에 있어서는 初層 塔身石에 판 구멍에 舍利를 裝置하는 例가 제일

많은 것 같다。여기에 말하는 驪州 下里 및 倉里 所在 三層 石塔 二基도 역시 初層 塔身石 上面에 있었으나 그 構造에 特異한 點이 있었으므로 다음에 簡單히 紹介하려 한다。이 두 石塔은 一九五八年十一月末에 원래 있던 자리에 서 西쪽 江邊에 位置한 迎月樓 下에 移建되였으며 지금은 한 자리에 나란히 서 있다。

먼저 下里 三層塔의 裝置에 對하여 말한다면 이는 보통 舍利孔과는 正反對로 塔身石의 上面中央에 方形二層級의 突起를 새겨서 마치 어떤 물건을 놓기 위한 받침臺처럼 만들고 있었다。그 部分의 치수에 對하여서는 圖面에 記入해 두었으나 이 初層 塔身石의 크기는 一邊이 二·四五尺、높이는 一一·五尺이었다。方形 突起의 上面에는 前後로 작은 圓孔 두 個를 봤는데 앞쪽에 位置한 하나는 徑一寸、또 하나는 五分 程度의 크기였으며 앞 것은 바닥을 判관하게 만들고 있었다。여기에 어떤 信仰의 對象을 安置하였는지 이미 內容을 喪失한 오늘날에 와서는 알 道理 없으나 바닥이 判관한 쪽에는 比等한 徑의 臺座를 가진 小佛像을 세워 놓았던 것이 아닐까 推測된다。이 方形의 突起部分 바로 위에 該當하는 屋蓋石 裏面에는 約四寸 깊이의 凹孔을 파고 뚜껑 모양으로 덮어 씨울 수 있게 하고 있었다。

倉里 三層塔은 基壇이 座臺形式을 이루고 있어서 高麗時代에 屬한 이 分明한 石塔이지만 初層 塔身石의 上面에 판 舍利孔은 五·五寸×三·三寸의 크기에 깊이一寸 前後의 매우 얇은 구멍이었다。이 네모난 구멍에도 그 바닥 南邊中央에 徑一寸 가량 되는 小圓孔을 한層 깊게 파 놓았으나 어떤 必要에서 마련된 裝置인지 역시 理解하기 어려웠다。이 塔身石 위에 있는 屋蓋石 裏面은 약간 凹面을 이루고 있었으나 特別히



구멍같은 것은 없었다. 이 탑도 이미 藏置品을 完全히 잃고 있었으나 基壇 下臺石과 地臺石 사이의 間隙에서 새끼손가락만한 銅製 如來立像 이 하나 發見되었다. 높이가 一·四五寸 臺徑 〇·六寸 늑쓸어 細部는 漆 漆치 않으나 오른쪽 손을 들고 왼손을 드리우고 있는 手形은 新羅統一 時代의 造像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佛像이다.

### 高麗梵鐘의 新例(其三)

黃 壽 永

(11) 靑銅小鐘 서울 李弘根氏 藏

總高一八cm 下徑一〇·五cm 上徑七·五cm의 小鐘인데 出土經緯는 未詳하다. 通型으로서 甬筒頂上이 方形을 이루고 그 四隅에 小珠各一粒 이 配置되었다. 上緣에는 넓은 立狀花瓣形이 間隔을 두고 七個 둘러있고 上下帶에는 草花文帶가 淺刻되었다. 上部에는 작은 四方乳廓內에 花紋 九乳가 있고 그 間地下의 鐘體에는 複蓮圓形撞座와 合掌形 菩薩坐像(蓮 座上) 各二가 交代하였는데 모두 鐘身에 比하여 大形이다. 鐘體에 一



第二卷 第一號 通卷 六號

破孔徑二·五이 있는 以外는 保存이 良好하다. 鐘體(乳廓下)에 記銘 數行 이 細刻되었으나 靑 鏽로 判讀至難하다. 下代로 推定된 小 鐘의 一例로서 形態 는 아담하고 龍鈕와 도 調和되었으나 彫 飾은 鈍厚하고 流麗

하지는 못하다.

(12) 善山出土靑 銅小鐘 無銘

總高十六cm 下徑 十一cm의 小鐘으로 서 昨年末에 出土되 었다고 하는데 龍鈕 가 없고 頂上中央에 는 小圓筒이 貫通되 었고 다시 筒上에 三山形의 꼭지가 있



어 懸架케 되었다. 上狹下廣의 形態인데 上緣에는 立狀如意頭文이 周回 되었다. 上下帶는 雷紋이며 四郭廓은 過大하고 各九乳가 配置되었으며 間地의 鐘腹에는 合掌跪坐의 飛天像 二軀와 圓形放射細線紋의 撞座二個 가 下帶에 接近하여 交代하였다. 全面에 濃綠鏽가 덮였으며 一部에 鐵 鏽가 附着되었다. 下端은 〇·八cm의 두께이나 鐘身은 얇아서 歪曲面이 보이나 아담하고 彫鏤는 纖細하다.

(13) 靑銅小鐘 서울 金東鉉氏 藏

龍鈕가 鐘體에 比하여 過大하나 各部樣式이 完備하고 彫鏤도 纖細하 다. 細長한 鐘體 上下에는 唐草紋 花葉紋이 있고 方形乳廓內에는 九乳 가 花瓣內에 突起되었으며 그 밑에는 圓形撞座가 二處에 相對하였고 間 地에는 神像 立像과 樂天坐像 各二軀가 交代하였다. 肩上에는 立狀蓮花 紋이 둘러있으나 一部를 缺하였고 頂上에는 二孔이 있으나 鑄造에 起 因한 듯하다.

甬筒은 貫通되었고 頂上에는 六珠가 달려 있는데 龍鈕는 角筒과 같은 높이로 屈曲되어 있다. 小品이나 彫飾이 鮮明하고 形態도 洗鍊된 手法을 보이고 있다. 日人 條崎(外科醫) 教授의 舊藏으로서 南韓出土라고 할 뿐 詳細는 不明이다. 總高 二三·八cm 鐘身高 一六·一cm(立狀蓮帶端까지) 上徑 一〇·三cm 下徑 一三·五cm 厚 一·五cm